

## 질의와 응답

**물음** 국악에 쓰이는 악기 이름으로 ‘장고(杖鼓)’가 맞습니까, ‘장구’가 맞습니까?  
(신미옥,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표준어 사정 원칙 제8항은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고 ‘짱충짱충, -둥이(←童-이), 발가승이, 보통이, 봉죽(←奉足), 뺨정다리, 아서, 아서라, 오뚝이, 주추(←柱礎)’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고 ‘부조(扶助), 사돈(查頓), 삼촌(三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 단어’ 즉 제시된 항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졌는지,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어형을 결정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성판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초판 1961, 3판 1994)에서는 ‘장고’를 ‘장구’의 원말로 처리하였으나,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2)에서는 동의어로 처리하였습니다. 뜻풀이는 모두 ‘장구’에서 하였으며 ‘장구 깨진 무당 같다’, ‘장구를 쳐야 춤을 추지’, ‘장구 치는 사람 따로 있고 고개 까다이는 사람 따로 있다’ 등의 속담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국어 사전들에서는 음성모음으로 굳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데는 일치하나, ‘장고’의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심의회 한글분과는 1994년에 초·중·고교 국악 교육 용어 통일안 심의에서 ‘장구’를 인정하고 ‘장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의에 따라 ‘장구’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단어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민규)

**물음** 구멍 무늬 토기를 ‘공열 토기’로 적어야 합니까, ‘공렬 토기’로 적어야 합니까?  
 (정기옥,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 한글 맞춤법 제11항은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도록 규정하고, 붙임 1에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되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孔列土器’는 ‘공열 토기’가 아니라 ‘공렬 토기’로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事故率, 志願率, 支持率’은 ‘사고율, 지원율, 지지율’로 적어야 하고, ‘間隙率, 孔隙率, 分讓率’은 ‘간극률, 공극률, 분양률’로 적어야 합니다.  
 (박민규)

**물음** 윗놀이에서 쓰는 ‘도, 개, 걸, 윗, 모’는 가축 이름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동물을 비유한 것이며, 또한 놀이 이름에 사용되는 우리말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서울시 은평구 불광 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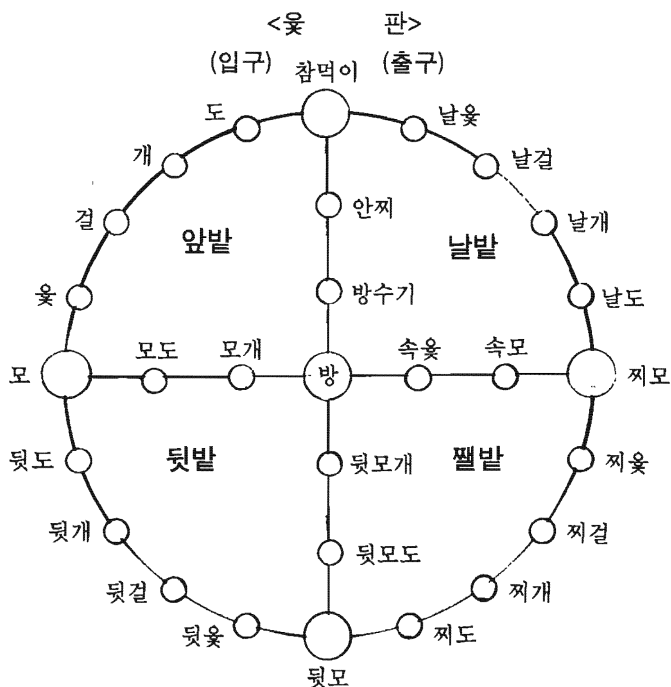
■ 윗놀이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행하여 온 우리 나라 고유의 민속 놀이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같은 명절에는 민족 고유의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상당히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윗놀이는 중국의 ‘저포’라는 놀이에서 전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삼국 시대 이전부터 널리 행해져 왔다고 합니다. 옛날 부여에서는 왕이 다섯 종류의 가축을 다섯 부락에 나누어 주고, 그 가축들을 잘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윗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놀이를 할 때도 ‘도, 개, 걸, 윗(숫), 모’를 ‘돼지, 개, 양, 소, 말’ 등에 비유하기도 하고, 관직명도 이와 같은 동물명을 붙였으니 ‘구가(狗加), 시가(豕加), 우가(牛加), 마가(馬加)’ 등이 윗의 이름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윗놀이는 4개의 윗좌, 29점의 윗판(말밭), 4개의 윗말(馬)을 사용하여

2편이 승부를 겨루는데 그 변화 무쌍한 흥미는 우리 민족의 슬기를 증명할 만한 것입니다. 옷의 등과 배는 음양 이치요, 옷판의 배열은 5경(東, 西, 南, 北, 中京)에 군사를 배치한 형태이며, 29수(宿)는 오행(五行)의 이치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옷판은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며, 29개의 동그라미는 하늘의 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는 우리말 용어가 많은데, 이 놀이 방법을 '동몰이, 동뛰기'라고 하고, 옷판 29점의 말놓기 명칭도 모두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개, 걸, 옷, 모; 뒷도, 뒷개, 뒷걸, 뒷옷, 뒷모; 찌도, 찌개, 찌걸, 찌옷, 찌모; 날도, 날개, 날걸, 날옷; 모도, 모개; 방; 속옷, 속모; 뒷모도, 뒷모개; 방수기, 안찌; 참먹이' 등입니다. 그 밖에도 '앞발, 뒷발, 짤발, 날발, 각막, 녀동, 낫수, 두동사니, 사리' 등 우리말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러한 우리말 명칭이 차차 사라지고 있으니 아쉽기만 합니다. 말[語]의 상실은 곧 사물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용기)



**물음** 미용을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것을 외래어로 ‘컷트(CUT)’라고 합니까, ‘컷’이라고 합니까? (유혜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답**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래어 표기법을 외우고 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때는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컷트’가 맞는 표기입니다. 그러면 ‘컷트(Cut)’와 ‘컷’의 쓰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컷트(Cut)’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체 중에서 일부를 잘라 내는 일.
- (2) 미용을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일 또는 그 머리의 모양.
- (3) 정구, 탁구, 골프 따위에서 공을 옆으로 깎아 치는 방법.
- (4)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잡아채듯이 치는 일.
- (5) 농구 등에서 상대방의 공을 빼앗는 일.
- (6) 영화의 편집, 검열을 할 때에 필름의 일부분을 잘라 내는 일.

반면에 ‘컷(Cut)’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영화, 텔레비전 등의 촬영에서 한 대의 카메라가 찍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회전을 끝낼 때까지의 하나의 장면.
- (2) 인쇄물에 넣는 작은 삽화.
- (3) 촬영할 때에 촬영기의 회전을 멈추거나 멈추도록 하는 신호.

이처럼 같은 외래어일지라도 쓰임에 따라 표기를 달리해야 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입(Type, 어떤 부류의 형(型))과 타이프(Type, 타이프라이터의 준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용기)

**물음** 친목회 회칙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연임(連任)이라고 합니까, 중임(重任)이라고 합니까?

(김인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답** 비록 친목회 회칙일지라도 바른 우리말을 써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연임’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거듭 임명되는 것’의 뜻으로 두

단어가 구분없이 쓰였지만, 두 단어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연임(連任)'은 '정해진 임기(任期)를 마친 후에 다시 거듭하여 그 임기의 직에 머무르는 일'을 말함. 예를 들면,

- (1)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하고 있다.
- (2) 그 분은 회장을 연임하였다.

반면에 '중임(重任)'은 '먼저 근무하던 직위에 거듭 임명되는 것, 또는 중대한 임무'를 말함. 예를 들면,

- (1) 이번 개각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은 중임되었다.
- (2) 그 사람은 중임을 띠고 출장을 갔다.

따라서 '연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직위를 갖는 자리에 거듭해서 그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말하고, '중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위를 갖는 자리에 거듭 임명되거나 또는 중대한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임'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자리에 연속해서 머무르는 일'인 반면, '중임'은 '불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한 자리에 거듭 임명되거나 중대한 임무'를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최용기)

**◻** **물음** 낚시꾼과 낚싯꾼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  
(김현영,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낚시꾼'이 바른 표기입니다. '낚시+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는 사이시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사이시옷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경우, 그 결합으로 인해서 뒷말의 첫소리가 경음이 되거나 뒷말의 첫소리 앞에서 ㄴ소리가 덧날 때 그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 때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두 명사 중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이고, 앞말은 모음으로 끝난 구조여야 합니다. 즉 합성 명사라도 한자어끼리 결합하여 이루어지거나 앞말이 받침 소리로 끝난 경우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등 발음에 변화가 있더라도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사이시옷이 쓰이는 환경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성 명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있는 단어에 다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는 합성법과 파생법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들은 각각 합성어,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합성어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끼리 결합된 경우이고, 파생어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느 한 요소가 자립적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무신(고무+신), 기와집(기와+집), 책가방(책+가방)’ 등은 합성어이며, ‘맨손(맨+손), 풋과일(풋+과일), 시부모(시+부모), 가위질(가위+질)’ 등은 ‘맨-, 풋-, 시(嫗)-, -질’ 등이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성분이므로 파생어입니다. 우리말의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파생어의 경우는 사이시옷 규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뉘시꾼’의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접미사입니다. 따라서 ‘-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꾼, 지게꾼, 사기꾼, 소리꾼 등)

그러나 자립성이 있는 다른 단어가 ‘뉘시’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형성할 경우, 그 뒷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ㄴ소리가 덧난다면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해야 합니다. ‘뉘싯대, 뉘싯밥, 뉘싯줄, 뉘싯바늘’ 등의 예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 구조 외에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의 6가지 한자어는 예외로 인정하여 사이시옷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원)

**물음**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넘비 혹은 뽀뽀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요?

(최현정, 인천시 남구 송의동)

**답** 이들 단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단어들로서, 영어 표현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입니다. ‘넘비(nimby)’는 ‘not in my backyard’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며, ‘뽀뽀(pimfy)’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문제와 지역 자치 정부간의 관계에서 그 뜻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넘비’라는 말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 시설들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는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며, ‘뽀뽀’는 대규모 첨단 산업 시설, 관공서, 문화 시설 등 이른바 선호 시설을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요청하는 현상을 일컫

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엔 상반된 뜻을 나타내는 것 같으나, 지역 이기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신조어들은 새로운 시대의 한 흐름을 간명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고 영어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국적 없는 낱선 말들인 만큼 되도록이면 사용을 피하고 우리말로 바꾸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희원)

**◻** 제 남편은 남들 앞에서 저를 가리킬 때 저희 아이 이름을 붙여서 ‘○○어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내를 가리키는 바른 지칭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영선, 경기도 성남시)

**■** 국어 사전에서 ‘어멈’의 뜻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안의 윗사람이 손자에게 그 ‘어머니’를 가리켜 이르는 말.
- 2) 자식 있는 남자가 웃어른에게 ‘자기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 3) 윗사람이 자식 있는 딸이나 며느리를 친근하게 일컫는 말.
- 4) 남의 집에 매여서 심부름하는 여자.

위의 뜻풀이로 미루어 보면 ‘어멈’이 아내를 가리킬 때는 부모님이나 그 밖의 웃어른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멈’이나 ‘어미’라는 말은 원래는 ‘어머니’에 대한 낮춤말이었으나, 우리 관습상 부모님이나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통 윤리관의 영향으로 이러한 말이 아내의 지칭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미’나 ‘어멈’이라는 말은 ‘아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지칭은 아니므로 반드시 웃어른 앞에서만 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말에는 ‘그 사람, 안사람, 집사람, 아내’ 등이 있습니다.

(정희원)